

[우리가 몰랐던 공자4]

출저 《10대와 마주하는 인문고전\_공자, 사람답게 사는 인의 세상을 열다》(이하 ‘10대와 마주하는 공자’) 출간을 앞두고 4회에 걸쳐서 여성, 청소년, 약자, 가족에 관한 주제로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시리즈 제목처럼 출저 《10대와 마주하는 공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미지의 논어 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공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몰랐던 공자와 논어의 세계를 보여주고, 뻔하고 한가한 논어 읽기가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논어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 4장. 공자의 가족

※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감춰주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감춰주는 것, 정직은 그 안에 있습니다.” - 《논어》, 「자로18」

### 국가, 국(國)의 상상력과 가(家)의 상상력의 결합

공자는 군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군자의 정치란 ‘귀족 정치’이며, 대신(大臣)들의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공자 자체가 고귀한 혈통 출신이지만 사(士) 또는 평민으로 몰락하였기에 옛 신분제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습니다. 공자의 철학에서 일부 민주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뿌리는 철저히 귀족 정치였습니다. 공자가 주공(周公)을 정치와 철학의 모범으로 삼았듯, 플라톤은 스파르타의 입법가 뢰쿠르고스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고대의 네 정치가 또는 철학자는 서로 닮았습니다. 플라톤이 철인왕(哲人王)의 독재정치를 꿈꾸었다면, 공자는 군자로 구성된 과두정치를 꿈꾸었습니다. 백성을 철저히 타자(他者)로 놓은 ‘왕-대신의 정치 방정식’은 맹자 이후까지 소중히 계승되며 ‘왕도 감히 부르지 못할 스승’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의 정치는 왕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장치가 특징입니다. 유력 가문의 입장에서는 공자를 업고 다니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주공이 노공에게 말했다. “군자는 친척을 버리지 않으며, 대신으로 하여금 써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지 않게 하며, 옛 친구나 오래된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버리지 않으며, 한 사람에게 다 갖추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 《논어》, 「미자」 편

“백성들은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알게 할 수는 없다.” - 《논어》, 「태백」 편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맹자》에서 더욱 강하게 계승되고 발전합니다. 맹자는 제나라 선왕을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오래된 나라[고국(故國)]라는 건 아름다리나무가 서 있는 나라를 일컫는 게 아닙니다. 대대로 녹을 먹는 신하가 있는 나라입니다. 왕은 친애하는 신하가 없습니다. 어제 벼슬을 받은 신하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맹자》, 「양혜왕 하」편)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쓰는 자[노심자(勞心者)]와 힘을 쓰는 자[노력자(勞力者)]가 있다. 마음을 쓰는 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자는 사람에게 다스림을 당한다. 힘을 쓰는 자는 마음을 쓰는 자의 통치

를 받고, 마음을 쓰는 자는 힘을 쓰는 자를 통치한다. 이것이 천하의 통례다”(《맹자》, 「등문공 상」 편)이라는 말로 노골적인 선민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한 번 던져봅시다. ‘국가(國家)’에는 왜 ‘집 가’자가 들어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의 집일까요? 우리가 ‘국가’라는 낱말을 쓰는 한 ‘이것이 나라냐 집이냐?’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앞글자인 ‘민(民)’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눈 목(目)’에 날카로운 송곳을 찔러서 애꾸로 만들었다는 이 낱말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요컨대 우리의 나라는 ‘가문’의 손아귀에 여전히 얽매어 있는 것 아닐까요? 왕의 집을 맨 앞줄로 세우고 크고 작은 집들이 쪽 세워졌던 것이 우리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튀어나올 틈이 희박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자유연애를 하고 싶은 ‘애기씨’에게 씌운 ‘정혼(定婚)’이라는 굴레는 과연 벗겨졌을까요?

물론 정치에서 ‘가족’은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정치의 전부는 아니죠. 법률도 있고 정책도 있습니다. 공자의 철학을 이해할 때 나침판처럼 쓸 수 있는 개념은 ‘일이관지(一以貫之)’입니다. 일이관지라는 말은 《논어》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한 번은 증자(曾子)에게 말했고, 또 한 번은 자공(子貢)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개념이 생명체처럼 하나를 이루고 있고, 제자들에게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으로 들어가도 몇 단계만 거치면 본질까지 가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가족’은 정치의 바퀴축처럼 작용합니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위대한 효도여! 오직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여 정사를 잡는다’고 하였다. 이것 역시 정사를 잡는 것이니, 무엇이 정사를 잡는 것이 되겠는가?”(《논어》, 「위정」 편)라는 말이나 “3년 동안 아버지의 정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효(孝)라 부를 만하다”(《논어》, 「학이」 편)는 말은 가족과 정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정해진 선을 넘을 수 없다는 엄중함마저 보입니다. 삼년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제자와 크게 다툰 후 험담을 하면서 “재여도 태어나서 3년 동안은 부모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아오지 않았던가?”라고 말함으로써 장례의 법도와 가족을 연결시킵니다. 《논어》에는 이런 사례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논어》에는 공자의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 제자들의 이견도 많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도가나 법가, 묵가 등으로 뻗어 나갑니다. 군자가 아무리 덕성이 높다 해도 개인의 정치는 임의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정치를 시스템의 정치, 또는 법률에 의거한 정치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도 없지 않았습니다.

애공(哀公)이 유약(有若)에게 하소연했다. “홍년이 들어서 물자가 부족한데 어쩌면 좋겠느냐?” 유약이 대답했다. “철법(徹法)을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10분의 2로도 부족한데, 어찌 10분의 1 세금인 철법을 쓰라고 하느냐?” 유약이 대답했다.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께서는 쪼들릴 틈이 있겠으며, 백성이 쪼들리면 임금께서는 어느 겨를에 풍족하시겠습니까?” - 《논어》, 「안연」 편

애공이 말한 정치는 개인의 정치입니다. 유약이 말한 정치는 국가의 정치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은 스승인 공자와 다른 생각입니다. 공자는 정나라의 정치가 자산(子産)을 몹시 존경했지만 성문법만큼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를 이상

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플라톤이 사숙한 스파르타의 입법가 뤼쿠르고스가 “법률은 바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레트라(Rhetra : 스파르타 시대의 일종의 헌법)를 성문법으로 만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기원전 536년 정자산은 술[정(鼎)]에 형서(刑書 : 형법 조항)을 새겨넣었다가 진나라의 대부 숙향에게 항의 편지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라 때 만든 『우형(禹刑)』과 은나라 때 만든 『탕형(湯刑)』, 그리고 주나라 때 만든 『구형(九刑)』은 모두 말세의 혼란기의 일로 정나라도 성문법을 세움으로써 나라가 기울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자산은 성의 표시로 회신하지만 “이미 일이 진행되어 그대의 명을 받을 수는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죠.

전국시대 당시 치열한 학문경쟁을 벌였던 도가(道家), 법가(法家), 묵가(墨家) 등에는 가족의 요소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漢)나라 황제 무제는 유가(儒家)를 국교로 선포함으로써 학문 독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유가를 국교로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유교를 내면화해야 반란이 줄어들고 다스리기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왕-신하 = 신하-백성 = 아버지-아들’을 강상(綱常)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죠. 강상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형(死刑)을 받았고, 마을은 계급이 강등돼 각종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사회가 경직되면서 여성이나 약자의 지위는 추락하여 지금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계급을 공자가 만들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공자는 유력 가문 중심의 정치를 옹호했고, 유력 가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론적 바탕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왕의 가족, 유력 가문의 가족에게 유리하지 않았다면 ‘공자’가 소환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중국과 한국 사람들은 유력 가문이 되기 위해서 극성스럽게 매달렸습니다.

## 공자의 엇나간 가족사랑

이번에는 사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자는 ‘사랑’ 자체라고 할 정도로 자신과 연관된 모든 것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강토, 문명,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랑의 모습은 《논어》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머무르던 동네를 사랑했고 노나라를 사랑했고 주공을 사랑했고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공자에게 했던 질문은 같았지만 대답이 달랐던 까닭은 질문한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제자를 사랑했고 그들의 장단점도 사랑했습니다. 존재에 맞는 대답이 나왔으니 다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랑 애(愛)는 두 얼굴입니다. 따뜻한 미소로 돌아보는 모습은 더없이 편안하지만 그 반대쪽은 싸늘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에는 ‘인색하다’는 뜻과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유가에서는 차등애(差等愛)라고 부릅니다. 묵자(墨子)가 말하는 박애(博愛)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고장에 행실이 곧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우리 고장의 곧은 사람은 그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깁니다. 곧음은 그 속에 있습니다.” - 《논어》, 「자로」 편

지금 그대가 평원과 광야에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전장에 나가 있어 죽고 사는 것을 알 수 없는 처지라고 하자. 또는 임금의 대부가 되어 멀리 파촉과 월나라 혹은 제나라, 형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처지라고 해도 좋다. 그럼 그대에게 물어 보자. 장차 어느 친구를 따를 것인지 궁금하다. 제 집안의 부모와 친척을 모시고 처자식을 이끌고 그들을 부탁하려 할 때 평등주의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인가? 아니면 차별주의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평등주의자에게 맡길 것이다. - 《목자》, 「검애 하」편

유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세속성’입니다. 공자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예에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상식이 되어버린 관념에 대해서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거의 없었던 당시의 상식에 편승했고,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에 대해서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유가의 관념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었다면, 또는 서양과 동양이 서로 뒤섞이지 않았더라면 여성들은 여전히 투표권을 갖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가족애’와 ‘인류애’는 같은 사랑의 속성이지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인류애로 품어야 하지만, 공자의 유가는 가족애로 인류를 품으려고 했기에 불가피하게 ‘차별의 언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맹자에 이르러 확산됩니다. 맹자는 목자를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는 금수의 철학”(《맹자》, 「등문공 하」 편)이라고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공자의 차등애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인(聖人)인 순(舜) 임금까지 끌어들입니다.

도응(桃應)이 물었다. “순임금이 천자이고 고요가 법 집행관이었을 때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맹자가 답했다. “법에 따라 집행할 뿐이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형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을까요?” “순임금이 어떻게 형 집행을 정지시키겠느냐? 순임금도 법률을 전수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순임금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순임금은 천하를 헌신짝처럼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래 업고 도망쳐서 바닷가를 따라 숨어 살면서 평생토록 천하를 잊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 《맹자》, 「진심 상」 편

공자의 ‘가족’과 ‘가족사랑’이 오늘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지금도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관습과 관념의 뿌리를 가늠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를 일단 밝으면 그 다음에는 해결 단계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